



이런 이유로, 그는 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티벳사람들과 티벳의 이야기가 베이지역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의 지붕” 티벳을 이 베이지역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북가주 티벳인 협회 Tibetan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TANC, <http://www.tanc.org>)에 의하면, 약 1,500명의 티벳인들이 버클리, 리치몬드, 엘 세리토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티벳불교를 전하며,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가는 곳마다 놓고 갑니다. 더우기, 이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버클리대학 인근 언덕에 닝마 교육원(Nyingma Institute)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벳불교를 가르치고 수행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1972년에 세워진 이곳은 멋진 정원과 함께 불교를 배우며 명상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9:30까지 빽빽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육원의 운영은 티벳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입니다. 바로 미국인들과 인근의 젊은 대학 청년들에게 라마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베이지역에서 약 3시간 거리의 Cazadero시의 태평양 연안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티벳불교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홈페이지에는 1988년에 완공된 이 Copper Mountain Temple (銅山성전)이 서양의 라마불교의 본거지라며 자부하는 곳입니다.

베이지역의 소수민족 교회와 사역자들

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윈보이스”는 지난 2년간 집중해왔던 아담간교회개척에서 더 나아가 올 해는 베이지역의 티벳민족 선교와 교회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몽골인 쉘몬 (Tsolmon) 목사님이 엘 세리토 인근에서 티벳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라마불교의 영향력있는 승려였던 할아버지의 영향

으로 라마불교학교에서 티벳언어와 불교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오클랜드 제일몽골교회 (오기롭산 담임목사)에서 지난 여름부터 사역하면서 버클리 인근의 티벳인들에게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쉘몬목사님의 정착과 사역을 돕는 것은 곧바로 티벳선교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지배하에서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없는 티벳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베이지역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티벳민족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마불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신공양을 하며 몸을 사르는 이 티벳민족에게 우리 주님의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벳인 전도는 전 세계복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티벳불교의 세계적인 전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티벳민족의 복음화는 그 어느 민족의 회심보다도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티벳민족에게 속히 진전된 영혼의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종교성이 강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열정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달라이 라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어느 민족보다도 귀하게 사용받을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해 티벳인들이 조국을 떠나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섬기라고 한국교회에 소명을 주십니다.